

#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7, 희년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7회기, 희년입니다.

그럼,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로 성경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이야기가 시작된 지 천 년이 지난 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낙하산처럼 그 지역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연속성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성경과의 유사점이 정말 흥미로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지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힝소스 제국의 지도를 찾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제국에 대한 약간의 시각적 그림을 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힝소스 제국은 터키 남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Hyksos의 S 끝에서 Yom Kippur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힝소스가 실제로 통치했던 매우 인상적인 물리적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이집트 중심부에서부터 이집트 중심부까지 통치했습니다. 힝소스 제국의 수도는 이집트의 아바리스였으며, 이후 유프라테스 강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물론 위대한 제국이었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었고 우리에게는 힝소스 명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역사를 설명했지만 그들은 성경 연구나 히브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맨 아래 문단에서 나는 아마도 제정하기 가장 어려운 경제적 실천이 희년의 실천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약에서는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7년 끝에 너는 빛을 탕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완화의 방식입니다. 모든 채권자는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면제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이웃과 그의 형제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지니 이는 주의 사하심이 선포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외국인에게 돈을 꾸어 주면 갚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네 형제에게 있는 것을 네 손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행을 행하는 이유를 4절의 유명한 구절, 곧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모리 족속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제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은 왕이 빛을 탕감해 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옛 바빌로니아 시대에 흥미로운 관례가 있었는데, 새 왕이 통치한 첫해에 그는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성경에서 새로운 왕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매 7년마다 빛을 탕감하고 땅을 휴경지로 삼고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manumite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세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경제 관행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은 한 주기로 일곱째 해를 해방년이라 부르는 경제 관행이었습니다.

출시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빚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아엎지 말고 모든 종을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별도의 범주에 넣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노예 해방은 단순히 부채가 탕감되는 또 다른 경우였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노예제도를 인종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문자 그대로 인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경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농업 공동체에서는 농작물 질병, 벌레 침입, 농부의 신체 장애, 농부가 병에 걸리는 등 많은 일이 농부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사람을 파산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 고대 세계에서는 파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완전한 실패, 경제적 실패라는 재앙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팔거나 자녀 중 하나를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편견이나 인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전히 경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동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은 한 세겔을 달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어 단어 세켈은 동전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게, 즉 무게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은을 저울로 달아보는데, 그것은 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화폐가 화폐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농부이고 물건이 없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땅뿐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팔 수

없다는 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히브리 농부가 팔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그의 자녀 중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경제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오해되는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분만 시간을 내어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를 넘어서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노예 제도의 개념이 신약성경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에 대한 잘 알려진 은유가 됩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건 너무 오해가 많은데, 시간을 내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노예 제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현실을 비유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자 노예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만 둘 다 단지 은유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 영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성경에 고유한 언어가 있는 해방을 희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희년은 일곱 곱하기 일곱의 해이므로 50번째 해가 희년이다.

그런데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이 장의 대부분은 희년을 논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희년은 일곱째 해인 해방년과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채 탕감 관행이 7주기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50주년이 단순히 신성한 50주년이었는지, 아니면 운영 방식에 실제 차이가 있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경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땅에 누워 있는 휴경지는 농작물을 심지 않은 지 50년째 되는 해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경제 시스템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 기원이 히브리어 안식일 개념에 기초하여 빛이 탕감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노트로 돌아가 이것을 보면 이 개념이 일찍이 사르곤 시대의 옛 아카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 릴리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다양한 왕실 릴리스에 대해 적어도 48번의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석방은 주기에 따라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은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올랐을 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석방이 있었고, 빛이 탕감되었습니다. 두 개의 아카드어 단어는 메샤룸(mesharum)과 안디라룸(andırarum)인데, 이는 히브리어 단어 야샤르(Yashar)와 편집자(editor)에 해당하며 어원적으로 동일합니다.

디루르는 메소포타미아 안디라룸의 진정한 대응물이므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메소포타미아의 방출에 대한 용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용어와 어원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shmita라는 단어이지만 어원적으로 동일한 dirur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오는 석방의 언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 48개의 서로 다른 릴리스를 추적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50개가 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설형문자 정제를 약 25만 개 발견했다고 말하곤 했는데, 오늘날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블릿을 인쇄하는 데 때로는 한 세대가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은 후 데이터가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까지 실제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릴리스는 아마도 50개가 넘을 것입니다. 50개가 넘는 릴리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석방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아마도 2500년경의 아코니툼(Aconitum)일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석방의 대부분은 성서 연구에 가장 유익한 시기인 초기 바빌로니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초기 바빌로니아 시대의 모든 왕들은 모두 석방을 제정했습니다.

사실,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암미사두카(Ammi-Saduqa)는 실제로 두 번의 석방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에서 언제 부채가 탕감될지 전혀 몰랐을 때 올 경제적 혼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옛 왕은 죽어야 하고, 새 왕이 왕좌를 차지해야 하며, 그의 첫해가 되어서야 석방됩니다. 그 모든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경제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왕권 중심에 묶여 있어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내 메모에서 바빌론 바로 서쪽 유프라테스 강 중류에 있는 작은 왕국인 가나에서 어떤 형태로든 석방을 다룬 세 개의 판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태블릿은 일반적으로 릴리스에 대한 보호 문서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설정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형태로든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돈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초기자금으로 50,000달러를 빌리고 싶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썄요, 저는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에게 50,000달러를 빌려주고, 현재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석방되고, 나는 \$50,000를 잃었고 당신은 \$50,000를 얻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짜 돈.

글쎄, 고대인들은 우리만큼 똑똑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더 똑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용 보호 장치를 만들어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함께 문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잃지 않도록 채권자인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우리는 이 대출이 채무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형 문자판에 명시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서, 이러한 보호 문서를 발견합니다. 뉴시(Newsy)라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공개를 언급하는 태블릿이 다수 발견됐는데, 이 역시 보호 문서다.

메소포타미아의 이러한 관행을 살펴보면 제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고대 바빌로니아 왕들은 적어도 한 번은 석방되었고, Ammi-Saduqa는 두 번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주목하고 Amid Saduqa의 석방에 대해 읽으면서 구약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누와 엔릴의 말을 듣는 겸손한 목자가 태양과 같은 땅을 위해 일어섰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질서를 창조한 해였습니다. 제가 의로운 질서에 밑줄을 쳤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서 해방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메샤룸(mesharum)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0년째 되는 해에 샤마시(Shamash)와 마르둑(Marduk)이 총애하는 참된 목자가 그 땅의 빛을 갹아 준 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견을 두 가지 주제 영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설정하여 조금 덜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여기 게시판에 적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주제 영역은 해방에 대한 성경적 개념 이고, 두 번째로 해방과 관련하여 선호되는 왕권 용어인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두 가지 유익한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유익한 강의일 뿐입니다. 괜찮은?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릴리스라는 용어입니다.

7년차 석방 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주기입니다. 좋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일곱째 날의 율법을 분명히 재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세 동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글썄요, 우리가 성경 전통에서 보는 이 해방은 분명히 안식일 주기의 연속입니다.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일곱째 해에 히브리인들도 안식해야 했습니다. 일년 내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안식일 주기가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괜찮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를 작성하려는 다소 슬픈 시도를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계시적 현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즉 그분은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매우 복잡합니다. 만약 제가 시카고 대학이나 미시간 대학과 같은 훌륭한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곳의 교수들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단순화된 방식 때문에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머리를 쪼갤 수 있는 복잡한 것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성경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고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모든 후속 세대에게 말할 필요가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그림의 중심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다른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 왕권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는 왕이 전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왕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왕이 전체 사회 체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완벽한 은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러면 해방을 제정함으로써 당신은 해방을 제정하는 메소포타미아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왕이에요. 그렇다면, 성서에서 석방을 제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왕도 위대한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은 왕이시지만 단지 그의 정체성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그가 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놀라운 출시의 경제 현상, 이 놀라운 경제 현상은 이보다 낮은 세 가지 실체를 다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토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류를 다룬다. 저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인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공간이 부족해서 인간보다 작기 때문에 인간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스가 다루는 것은 땅과 인간, 인류라는 두 가지 현상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글쎄요,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고대 근동 사상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펜 색상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나는 당신과 내가 사람들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 쇼핑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성경적 사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찰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사고에서 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고, 그분을 공급자로 생각합니다.

괜찮은?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전달하실 때 안식일 모델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문화입니다. 나는 실제로 내가 몇 살인지 말할 만큼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39세 이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렸을 때 일요일이 오면 일요일은 대부분 일이 끝나는 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애 동안 일요일이 나머지 주의 나머지 부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곳에서 그것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요일이 구약의 안식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글썄, 이 모든 것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경제 계획이 단순한 경제 계획이 아니라는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모든 것이 신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주시는 분이자 인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두 사건 모두에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제 우리를 행동의 에너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수직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방이 이와 같이 작용하는 수평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인류뿐만 아니라 땅 자체에 대한 안식과 빛 탕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므로, 하나님에 대한 종적인 책임에서 나오는 인간과 땅 사이의 횡적인 책임이 있는 체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말씀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문화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일부 아이디어를 구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안식을 주시므로써 인간이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이 완전히 신성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점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은 그 땅에 사는 인간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존경심과 존엄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7년 동안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많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는 일은 인류와 땅에 우리 둘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쉬을 얻듯이 인류도 쉬을 얻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땅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는 현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사람이 없을 때 땅이 가장 잘 봉사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좀 더 극단적인 형태 에서 내가 받는 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남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영구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주기적인 휴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토양의 비옥함을 고갈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안식을 준 데에는 생태학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식일 개념을 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모델은 단지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지구도 주기적으로 쉬어야 하고, 인간도 주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천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땅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고, 여러분과 저는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소작인입니다.

우리는 땅을 경작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채 탕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측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서양 사상에서는 인류의 자유에 중점을 두지만, 심지어 미국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된 것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에 명백하고 신성한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지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에서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모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인간을 경제적으로 학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극적으로 신중심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 체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제 시스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비해 너무 극적일 수 있는 이 진술을 허용한다면 인간은 경제적으로 서로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7년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대출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으면 해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주의 형태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양심이 있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즉,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거나 당신보다 더 영리하고 영리한 이웃이 당신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은 매 7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있는 시스템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시작에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위해 역사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학적으로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생태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 즉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족다; 저기서 단어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관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보입니다.

신명기 15장을 읽을 때 이번 주에는 모든 것을 다 넣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읽어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명기 15장의 하나님의 목표에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백성 모두가 평등하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포도나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업의 세계였습니다.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재산을 소유하고, 7년마다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므로 모든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학과 경제학의 조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전통에서 그가 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의해 적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모델 위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적어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구적이기를 의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기적으로 재탄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창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1400년에 모세는 이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1360년에 조슈아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고, 수십 년 동안 상황은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일어나 조슈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후계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정확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으면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0년 동안 우리는 단지 300년 이상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번역된 단어는 릴리스(release)라는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연합된 백성도 없고 연합된 지도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0년 동안은 해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50년 사울과 함께 마침내 첫 번째 왕이 나올 때, 첫 번째 왕이 나올 때쯤에는 우리는 이미 석방되지 않은 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 구약 전체를 통틀어 석방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더십이 없고,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릴리스를 소개할 사람도 없고 따라갈 사람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권이 나타날 때쯤에는 나중에 경제적 흐름을 방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해방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또한 선지자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학대하는지에 대한 주제보다 더 열정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1차 개념이다.

나는 또한 리버티 대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두 유대인이었던 사도행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팔고 최선을 다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경제를 창설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초기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공동체를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신명기 15장의 모델을 따랐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 시대에 얼마나 멀리 멀어붙었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을

다루든 신약을 다루든,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빈곤 문제로.

이는 창조 자체에 뿌리를 둔 윤리적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 탕감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각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지위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들을 삶의 운명이 가난한 것처럼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실제 이미지 보유자로 보지 않는 심리적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다른 수업에 있는 것처럼 본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이야기이지 않나요? 그래서 구약성서에는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는 구약성서의 배경정보일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의 배경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을 포함하여 다윗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셨을 때, 역대하 36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의 연수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합니다. 바벨론을 범한 안식년의 수로 계산함. 그들이 위반한 안식일의 수만큼 그들이 포로생활을 할 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70년의 안식일, 70년의 7번 등등.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 바빌로니아 시대의 일부이자 핵심인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살아 있고 지배적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끄러운 소수 학자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그 구절이 과학적으로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한, 성경 구절의 역사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여기에서 바벨론의 해방과 성경에 언급된 해방 사이에 연결하려고 했던 것을 부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출시가 아닙니다. 창작 자체와 연결된 릴리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과정에서 끝없는 순환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끝없는 순환은 아마도 전도서 3장에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그 구절에서 이것에 대한 시간과 저 시간에 대해 그 구절의 저자가 우리에게 14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14배, 저것의 14배.

살 시간, 죽을 시간. 그것은 분명히 창조의 2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중 생성.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적절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이 지구상의 삶이 더 나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은 제가 공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세속 정부라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따르고 이를테면 우리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더 나은 윤리적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제도는 결코 실행되지 않았습니니다. 그에 따른 결과도 있었습니니다.

그러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 세계에도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개념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가 휴가를 갈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누가의 인용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은 분명히 레위기 25장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해방 개념이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수단이 되는 방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점을 지적한 후 다음 시간에 집중할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해방과 관련된 목자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은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7회기, 희년입니다.